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2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3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5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 의무를 다하라

6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권세에 순종해야 하고, 국가가 부여한 의무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나라의 국민이고, 보이는 국가에 충성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바울이 권세들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절)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것과 같나요? (2절)
2. 바울은 권세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4절)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5절)

• 답아가기

나는 부모님, 선생님, 정치인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괜히 빼놓아진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나요? 이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할까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월요일
20.08.24

[로마서 13:8-14] 마지막을 사는 법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사랑은 율법의 완성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돼 있습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깨어야 할 때가 다가옴

11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3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3 묵상하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감격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사랑에 빛진 사람의 삶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율법에 적힌 그대로 지키며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레 율법대로 살아지는 것 말입니다. 또한 성도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낮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단정하게 행동하듯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이 있지만 나는 말씀 안에서 이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시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자'라며 욕망과 경쟁과 성공을 가르칩니다. 또한 학업과 친구 관계, 먹는 것, 게임, SNS 등 여러 흥미거리들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종말의 때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안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나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시기하고 경쟁하며 사랑을 잃은 삶을 살고 있나요?
- ②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이고 벗어야 할 어두움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 어두움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1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2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3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4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존재

5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6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9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0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11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3 묵상하기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는 이유로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지 않았고, 안식일과 절기 등 율법이 정한 날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를 율법에서 자유해진 성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자 바울은 그 어느 쪽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며(4절),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10-11절). 아직 율법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해도 그들 역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존중해야 하고, 그들도 곧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4 적용하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닌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기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포용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적은 없나요? 그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 ② 나의 신앙이나 선택에 대해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존중하기보다 반감과 거부감이 앞서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방법은 달라도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됨을 인정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15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16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18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에도 인정을 받습니다. 19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 주는 일에 힘쓰십시오. 20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에는 불결합니다. 21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 믿음을 지키라

22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3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3 묵상하기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는, 다른 믿음의 형제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13절).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렇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라며 정죄하는 나의 시선으로 인해 누군가 근심하거나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신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15절). 둘째는, 믿음과 신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14절). 나의 신앙은 대세에 따라, 상황과 처지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시시때때로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될 것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기준을 세웠다면 포기하지 말고 나의 이 믿음과 신념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감당할 영적 싸움입니다.

4 적용하기

학교 안에서, 때로는 신앙 모임이나 가족 안에서조차 내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거울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안 가는데 나도 예배 빠질까?', '교회 다닌다고 티내지 말고 적당히 하자'와 같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저건 잘못됐는데' 싶어 누군가의 신앙이 사사건건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과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혹시 내가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의 신앙과 상태를 존중하기 위해 오늘 절제할 일은 무엇인가요?
- ②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다른 크리스천들이 한다는 이유로, 혹은 상황이 복잡해질까 봐 나의 신념을 타협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나의 신앙과 신념을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웃을 기쁘게 하라

1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 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4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6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 서로 받으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8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9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10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11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12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3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3 묵상하기

우리는 홀로 살아가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 사람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죄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죄악과의 영적 싸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분명 어울리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답이 없는 나를 자녀로 받아 주신 그분(7절)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4 적용하기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나와 생각이 너무 달라서 자꾸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나요? 그냥 성격대로 대하고 싶더라도 한 번만 더 감싸 주기 바랍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한 번 더 받아주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한마음 한입으로 찬양하는 공동체(6절), 소망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13절).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가정, 교회 등 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숙해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가지는 무엇일까요?
- ②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외면하고 싶은 지체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이제 그 지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연약한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 감싸 주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금요일
20.08.28

[로마서 15:14-21]

나의 소명, 나의 자랑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 바울

14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므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15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6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바울의 자랑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18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20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21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 묵상하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자신의 소명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하기 위함이고, 또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의지로 일구었다면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간증하겠지만, 회심한 이후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간 바울이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이 또 한 사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소명이자, 간증이자,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나도 바울처럼 내가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경험한 주님을 얼마나 힘써 전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몇 명을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② 전도하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되돌아 보세요. 나는 나 자신, 혹은 내가 한 일을 자랑하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하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저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95장 (나 말은 본분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로마 방문 계획

22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23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24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 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5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26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27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29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 중보기도를 요청함

30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31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32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